

새해 순천 제조업체 체감경기 전망 '매우 악화'

순천상의 조사, BSI '72'...기준치 크게 밑돌아 "고물가·원자재 지속 리스크 커...정부 대책 필요"

순천상공회의소가 최근 관내(순천·구례·보성) 60개 주요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2023년 1/4분기 기업경기전망을 조사한 결과, 기업경기실사지수(BSI) '72'를 기록, 체감 경기가 매우 악화될 전망이다.

조사 대상 업체의 53.6%가 연초 계획한 매출 실적 목표 수준에 미달할 것

로 예상했으며 영업이익의 또한 67.9%의 업체가 목표치에 미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목표한 경영 실적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국내의 요인으로 가장 많은 업체가 꼽은 항목은 '원자재 가격(41.0%)'이었다. '내수시장'과 '수출시장' 경기는 각각 20.5%로 집계됐다.

한국 경제의 새해 성장률과 관련해 조사에 응한 업체 중 44.4%가 최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6%로 낮춘 정부와 비슷한 1.5~2.0% 수준으로 전망했다. 이보다 낮은 1.5% 미만으로 전망하는 업체도 48.1%에 달해 체감하는 경제성장률은 더 낮을 것으로 보인다.

2023년 매출 전망의 경우 과반이 넘는 업체(55.2%)가 매출 성장이 없거나,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반대로 44.8%의 업체는 매출 성장을 예상했는데 이는 기계·부품 업종을 중심으로 계절적 요인에 따른 수주 잔고 증가, 내년 정부

예산 상반기 조기 집행, 수출·내수 진작 정책 등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을 위해 전망하고 있는 환율 수준으로 '1천300원 이상 1천350원 미만'을 예측하는 업체가 38.1%로 가장 많았으며, 자금 조달 금리는 '4.0% 이상 5.0% 미만'으로 예측하는 업체가 27.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2023년 한국 경제를 위협하는 리스크 요인으로는 '고물가·원자재가 지속' 항목을 꼽은 응답이 39.0%로 가장 많았고, '내수경기 침체'(15.3%), '고금리 지속'

(13.6%)이 뒤를 이었다.

이후 순천상의 회장은 "거리두기 완화로 되살아나던 민간 소비와 투자 심리가 고금리, 고물가로 인해 크게 위축됨에 따라 지역 기업은 생산 비용 상승에 따른 압박과 매출 감소 및 재고 증가라는 복합적인 문제에 직면한 상황"이라며 "새해에는 경기 부양을 위한 금리 정책, 수출·내수 활성화를 위한 실용적인 조치를 바탕으로 경기 둔화의 악순환을 조속히 끊어 침체가 장기화하지 않도록 정부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순천=남정민기자



장흥, 베트남 김·표고 수출 시동 달랠시 방문 수출 협의·협력 강화

장흥군이 우호 교류 도시 베트남 달랠시를 방문해 본격 수출 협의에 나섰다.

장흥군은 27일 "최근 특산물 수출 활성화 교류 방안 협의를 위해 조석훈 부군수, 장용철 장흥무산김(주) 대표 등 장흥군 대표단이 베트남 달랠시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사진)

달랠시 대표단이 대한민국 통합의학 박람회 방문한 데 대한 답례 방문으로 군 대표단은 제9회 달랠꽃축제 개막식에 초청됐다.

군은 지난 11월 친환경 파래김·도시락김·자반 볶음 등 8개 가공식품 2t 2천800만원 규모 물량을 첫 수출해 가능성을 확인했다. 톤 티엔 산 달랠시장과 면담하고 장흥군 농·수·축·임산물 수출·판매 확대와 교류협력 강화에 합의했다.

군 관계자는 베트남 달랠시 현지에서 조성된 장흥군 특산물 판매장을 방문해 품목·소비 성향을 분석하는 등 수출 본격화를 위한 현장 점검에 나섰다.

조석훈 부군수는 "수출을 통해 무산 김·버섯 뿐만 아니라 장흥군 대표 특산품을 알려 농가 소득을 확대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흥=노형록기자

보성군, 지방재정대상 행안부 장관상

세출 절감 호평...도시 숲 조성 4억4천만원 절감

보성군은 27일 "행정안전부 주최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해 재정 인센티브 1억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재정 분야의 가장 권위 있는 상이다. 전국 지자체 세출 절감, 세입 증대, 기타 재정 분야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전국에 전파·공유함으로써 지방재정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특히 보성군은 세출 절감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군은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타 사업·타 기관과 연계·협력해 약 4억4천만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숲 조성에 필요한 토사와 다양한 종류 수목을 재활용하거나 양도받아 사용하면서 사업비를 절감하고 지속 가능·친환경적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김철우 군수는 "물가 상승과 코로나19로 지역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 만큼 지방재정 효율성과 건전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성=임병언기자

은 점수를 받아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군은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타 사업·타 기관과 연계·협력해 약 4억4천만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숲 조성에 필요한 토사와 다양한 종류 수목을 재활용하거나 양도받아 사용하면서 사업비를 절감하고 지속 가능·친환경적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김철우 군수는 "물가 상승과 코로나19로 지역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 만큼 지방재정 효율성과 건전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성=임병언기자



전남인적자원개발위원회는 지난 23일 순천에서 '탄소 중립시대, 광양만권 인력양성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전남인적자원개발 포럼을 개최하는 등 잇따라 에너지산업 및 탄소 중립시대 인력양성을 위한 인적자원개발 포럼을 열었다.

전남인자위, 인적자원 개발 포럼 주목

에너지산업·탄소중립시대 인력 양성 개발방안 모색

전남인적자원개발위원회(이하 전남인자위)가 최근 나주와 순천에서 에너지산업 및 탄소 중립시대 인력양성을 위한 인적자원개발 포럼을 잇따라 개최해 주목받고 있다.

지난 23일 오후 순천에서 '탄소 중립시대, 광양만권 인력양성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전남인자위 광양만권 포럼이 열렸다.

이날 포럼에서 주경원 전남대 산업전환공동혁신센터 박사는 '탄소중립 실현에 따른 광양만권 인력양성 전망과 과제' 주제발표를 통해 "인력양성을 위한 전남도와 지자체(여수·순천·광양, 산

업단지, 대학, 연구소, 시민단체 간 네트워크 형성 및 역할 분담과 탄소중립 실현에 필요한 산업별 전략 수립, 단계별 인력 육성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9일에는 '에너지 대전환시대, 에너지산업 인력 양성 현주소와 미래'라는 주제로 나주 듀플렉스 레스던스 호텔에서 인적자원개발 포럼이 열렸다.

최용성 동신대 교수는 '에너지산업 일자리 및 인력양성 과제와 대응 방안' 주제 발표를 통해 "네덜란드와 노르웨이 등에서 내연기관 신차 판매가 오는 2025

년부터 금지되는 등 세계 주요 국가의 글로벌 정책 기조가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 금지로 향하고 있다"며 신재생에너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교수는 "에너지 신산업 관련 기술 인력 양성 및 지역 수요에 맞는 맞춤형 인재 양성, 에너지 신산업 분야 교육과정 모델 확산 등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유튜브와 광주매일TV 등을 통해 중계된 이날 포럼에서는 이날 에너지밸리 혁신산단 입주기업 협의회장과 박태식 목포대교수, 오성수 광주매일신문 본부장, 김동욱 전남테크노파크 에너지산업센터장이 패널로 참석해 토론했다. /목포=정해선기자

담양 관방천, 명품 하천 재탄생한다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 선정 500억 투입

담양군 대표 관광지인 죽녹원·관방제림·메타세쿼이아 길 인근 관방천(사진)이 명품 하천으로 재탄생한다.

담양군은 27일 "최근 환경부 공모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에 영산강 관방지구가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은 홍수에 안전하면서 환경·생태·지역 특성에 맞는 개발을 통해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신개념 통합하천 사업이다.



이병노 군수는 "연간 360만명이 방문하는 전남권 대표 관광지 죽녹원·관방제림·메타세쿼이아 길과 연계해 관광지가 명품 하천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전국 지자체에서 제출한 사업 대상지 중 선정된 22곳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기본 구상을 마련해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담양=정승균기자

사업을 통해 담양읍 학동리(학동교)~삼다리(삼다교) 일원 약 4.7km 구간에 총 500억원(국비 50%, 도비 15%, 군비 35%) 사업비를 투입해 제방 축제 및 보축·생태공원·친수공간·야간테마공원 조성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군은 영산강 관방지구 통합하천 사업이 완료되면 재해 예방, 환경 개선은 물론, 지역 경제 파급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성, 심뇌혈관연구 국비 25억 확보

장성군이 국립심뇌혈관연구소 설립을 위한 정부 예산 25억원을 확보했다.

27일 장성군에 따르면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2023년 정부 예산에 국립심뇌혈관연구소 설립을 위한 건설 공사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비 3억3천만원, 기본조사 설계비 21억원 등이 최종 반영됐다.

국립심뇌혈관연구소 설립 사업은 2021년 질병관리청이 자체 추진한 용역 결과, 사업 규모가 490억원에서 1천94억원으로 확대되면서 현재 타당성 재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장성군과 전남도, 질병관리청은 차질 없는 연구소 설립을 위해 전담반을 구성하는 등 적극 대응 중이다.

2021년 통계에 따르면 심뇌혈관 질환은 암에 이어 국내 사망 원인 2위에 올랐다.

김한중 군수는 "장성군민과 전남도민 숙원사업인 국립심뇌혈관연구소가 조속히 장성에 설립될 수 있도록 타당성 재조사 통과를 위해 사활을 걸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성=김문태기자

광주매일신문 전통시장활성화 연중캠페인

“전통시장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일어납니다”

서민들의 삶의 애환이 깃든 '전통시장'이 정기화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양하고 편리한 유통시설이 들어서면서 '전통시장'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갑니다. 하지만 '전통시장'은 여전히 지역경제에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민들에게는 다양한 상품을 싸게 살 수 있는 현장이면서 인정을 나눌 수 있는 공간입니다. 각 자치단체에서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광주매일신문은 시·도민들의 지혜를 모아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연중 캠페인을 펼치겠습니다.

지리산의 넉넉함을 담은
인정 가득한 곳

구례5일시장

● 장이 서는 날 ●
매월 3일, 8일로 끝나는 날
위치 : 구례군 구례읍 5일시장작은길 20

주최 : 광주매일신문 · 광주매일 TV
후원 : 구례
문의 : 062)650-2099